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5년 8월 첫 번째 30권 12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카투사들의 헌혈로 나누는 사랑
3면 군관련 소식
신장중학교생들 용산기지 방문
한마디
4, 5면 부대 탐방
618치과중대

6면 주한미군 사령관 서한
대한민국 군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7면 카투사 기고문
TV 드라마 속에 나오는 옛날 차들
8면 안녕하세요
최자혜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9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05년 올해의 카투사

25일 용산 기지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DHL(Dragon Hill Lodge) 호텔의 나이자 연회장에서 2005년 올해의 부사관, 병사, 카투사 시상식이 열렸다.

미8군이 주관하는 이 시상식은 올 상반기 동안 각종 보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마지막 단계인 미8군 보드에 출전하게 된 부사관, 병사, 카투사들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인원을 각각 한 명씩 선출하여 상을 수여하는 연례행사이다.

이날 수여된 세 개의 상을 받기 위해 경합한 총 열 두 명의 후보자들은 6일간에 걸친 미8군 보드 기간동안 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술 시험과, 주야간 독도법, M16A2 사격술, 무전기 교신법, 군사 차량 점검, 제식, 눈을 가린 체 총기를 분리, 결합시키는 시험 등을 치렀다.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과 미8군 주임원사 베리 윌러 주임원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의 주인공 세 명은 2사단 1/38 포병대대 토마스 빈하사, 19전지사 46수송중대 로버트 웰러스 일병, 18의무사령부 16의무대대 김정탁 상병으로 선정 되었다. 이들은 각각 올해의 부사관, 병사, 카투사 상을 받음과 동시에 부상으로 9박 10일의 포상휴가와 제주도 왕복 여행권, DHL 호텔 숙박권, 소정의 상금 등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전 미군 보드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날 올해의 병사 후보로 참석한 1통신여단 169 통신중대 마이클 피체트 상병의 스폰서로 시상식에 참여한 169 통신중대 이청희 병장은 "수상한 동료들이 부러울 따름"이라며 "우리 부대 소속의 미군 동료는 아쉽게 탈락했지만 시상식에 참여 한 것은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의 카투사의 네 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이었던 20지원단 19전구지원사령부 김영재 상병은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매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되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결과에 대해 아쉬운 마음은 없지 않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얻은 수많은 것들에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카투사 신문 최의진

시상식에 참석한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과 올해의 카투사 상을 수상한 김정탁 상병.

올해의 카투사 상을 수상한 김상병은 축하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말할 것도 없이 기쁘다"고 말하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다른 것보다 PT 점수가 오늘 수상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마지막에 치렀던 구술시험에서 다른 동료보다 약간 앞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상으로 받은 다른 어느 것 보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군 보드대회의 출전이 가장 기대되는데 열심히 준비하여 또 좋은 성과를 얻고 싶습니다." ■

상병 최의진

백선엽 장군 리더십상 시상식

카투사 신문 심영식

백선엽 예비역 대장으로부터 수상하는 2사단 1여단 2/9 보병대대 소속 장재철 병장.

7월 8일, 용산의 MPTF (Multi-Purpose Training Facility)에서는 올해의 오디 머피 상, 백선엽 장군상과 메리 워커 박사상 시상식이 있었다. 양국 국가의 연주로 시작된 시상식은 각 상과 인물들에 대한 역사를 담은 영상물 상영으로 이어졌다. 이번 시상에는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 백선엽 예비역 대장, 미8군 베리 윌러 주임 원사 및 다수의 장병들이 참여하였다. 오디 머피 상은 생전의 오디 머피처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부사관들에게 주는 상으로 이 상을 수여받은 자는 오디 머피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클럽에 가입하는 병사에게는 최고의 부사관이라는 명예가 주어진다. 이날 수상을 한 23 화학대대의 코리 왈턴 중사는 "선두에서 병사들을 이끌었던 것이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며 기쁨을 전했다.

총 9명에게 수여된 백선엽 장군상은 상병 이상의 카투사들에게 주는 상으로 이 역시 뛰어난 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가진 인원에게 수여 되는 것이다. 36

2면에 계속...

카투사들의 헌혈로 나누는 사랑

7월 27일, 용산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MPTF(다목적 훈련시설)에서 용산지역대 카투사들의 헌혈 행사가 열렸다. 대한적십자회 중앙혈액원기획팀 이용호씨에 의하면 벌써 20년이 넘게 진행해온 이 헌혈행사는 연 2회씩 카투사가 복무하는 모든 미군 부대에서 실시된다고 한다. 그는 또 "보통 150명에서 200명 정도 참여한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미군들도 헌혈이 가능하지만 그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헌혈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카투사 신문 심영식

헌혈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미8군본사 인사참모부 김세호 상병.

헌혈이 다 끝난 후 모든 혈액들은 일련의 검사 과정을 거쳐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들로 운송되어진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 마지막 검사를 거쳐 환자들에게 수혈된다. 이씨는 카투사들의 참여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였다.

"헌혈은 생명을 구하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런 좋은 일에 군장병 여러분들이 단체로 참여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날 헌혈행사에 참가한 미8군 감찰부 소속 박형원 일병은 "군입대전에는 헌혈에 대해 무관심 했었는데, 군복무를 하며 좋은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헌혈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피 뽑는 것이 조금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헌혈한 피가 저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혈되어 유용하게 쓰인다니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낍니다." ■

일병 심영식

1면에 이어서...

백선엽 장군 리더십상 시상식

통신대대 169중대 이청희 병장은 "오디 머피상에 상응하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오랫동안 기억 될 것이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메리 워커 상은 장병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한 배우자가 받는 상이다. 이 상은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병사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올해는 아만다 번즈씨에게 돌아갔다. 이 행사를 주관한 302여단보급대대 그레그 번즈 주임원사의 아내이기도 한 그녀는 여러 기관들에서 일을 하며 장병 가족들에게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였다. 그녀는 "너무나 큰 영광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였다. ■

일병 심영식

카투사 신문 최의진

지난 12일 용산기지 한국군지원단본부에서는 2005년 상반기 성과분석회의가 열렸다. 한국군지원단장 이용일 대령을 비롯하여 여러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 회의는 2005년 상반기의 실적 분석과 향후 추진 방향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신장중학교생들 용산기지 방문

지난 7월 16일, 용산 미군기지 소재, 미8군 공보실 소속 장교들과 카투사들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장중학교 학생들을 부대로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리온 라포트 대장의 명으로 시행되어 온 좋은이웃 프로그램을 미8군 공보실장 토마스 버지나 중령이 제안함에 따라서 계획되었다.

행사 당일에는 29명의 신장중학교 학생들과 인솔 교사 네 명이 부대를 방문하였고 주한 미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를 상영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비디오 시청이 끝난 후, 학생들은 미8군 공보실 카투사들과 함께, 부대내의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았고 그에 이어 메인포스트에 위치한 푸드타운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끝마친 오후 1시경, 학생들은 용산기지내 사우스포스트의 미니 골프장으로 다시 이동하여 미8군 공보실 인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골프게임을 즐겼다.

행사의 진행 및 안내 부분을 총괄했던 미8군사령부 민사처 소속의 응조 셀렌씨는 "기존 대학생 위주의 군사안보 교육이 중, 고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B 이며 전화번호는 723-4872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do.ho.kim@usfk.korea.army.mil이다.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이용일
미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중위 이준범
편집장
상병 김도호
기자
상병 최의진
일병 심영식
일병 이정우
이병 박지용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Cpl. Kim, Do-ho
Staff Writers
Cpl. Choi, Eui-jin
Pfc. Shim, Yung-sik
Pfc. Lee, Jung-woo
Pv2. Park, Ji-yong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 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B,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4872.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do.ho.kim@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4872

E-mail: do.ho.kim@usfk.korea.army.mil

카투사 신문 박지웅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미니골프장에서 점수표를 나누어 주고 있는 미8군 사령부 민사처 소속 응조 셀렌씨.

등학생들에게 까지 확대되는데 일역을 담당하여 뿌듯하다"며 "최근에 사회 전반에 팽배한 반미감정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셀렌씨는 한국과 미국이 진정으로 상호신뢰 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하리라는 확신을 내비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한미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비록 미진한 시작일 수도 있겠지만 종내에는 상호간의 영속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초석으로 발돋움 할 것을 확신합니다." ■

일병 이정우

카투사 신문 심영식

한미합동연주회 '한여름밤의 서정곡'이 7월 31일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미 8군 군악대와 분당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이 공연은 지휘자 김필주씨, 테너 강무림씨(왼쪽),소프라노 박정원씨(가운데), 피아니스트 태정화씨, 기타리스트 오승국씨, 지휘자 리사 권 준위(오른쪽)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동요, 클래식, 사물놀이, 영화음악 등 16곡을 연주하여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수 많은 갈채를 받았다.

Area III PAO/ Furman Neeley

지난 20일 캠프 험프리즈의 체육관에서 평택 지역대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전 평택 지역대장 황인주 소령의 이임식과 이날부터 지역대를 맡게 된 평택 지역대장 이정환 소령의 취임을 축하해주는 자리로 한국군 지원단장 이용일 대령 및 용산 지역대장 강성룡 중령 등 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새로 취임한 이소령은 육군사관학교 제 45기로 지난 89년 임관하여 제2포병여단 899포병대대, 제9사단 포병연대,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11민사여단 등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카투사 한마디

바다에서 있었던 !? 재미난 이야기들

618치과중대 사령관 운전병
김영범 일병

중학교 2학년 때, 생전 처음 와이키키 해변을 갔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해외여행이라 그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해변의 정취를 온 몸으로 즐긴 후, 혼자 거닐던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618치과중대 DC3 치과병
여성구 이병

'바다'하면 2년 전 배낭여행 때 갔던 바르셀로나 해수욕장이 생각납니다. 서핑하는 사람들,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뜨거운 태양을 만끽하며 선탠을 하는 사람 등, 더위에 지친 저의 피로를 풀어주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 바다는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할 것입니다.

618치과중대 보급병
서영호 상병

시간이 닿는 대로 부산에 들를 기회가 있으면 항상 태종대를 찾곤 합니다. 10년 전부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매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다를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18치과중대 선임병장
박민서 병장

10년 전에 동해안 속초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계선에 가까운 깊은 바다까지 헤엄쳐 가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아저씨가 전속력으로 저에게 헤엄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5미터 쯤 앞까지 와서 저를 다시 보더니, 이 말 한 마디를 남기고 다시 해안가로 도망치듯 떠나갔습니다. "김건모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로부터 '오복'중 하나로 여겨진 건치. 하지만 우리는 의외로 치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가 우리가 치아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고작해야 매 식사 후에 1~2분 정도의 형식적인 양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세끼 식사를 마치고 매번 양치하는 사람도 드문 실태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치아 관리 소홀의 대가는 과소평가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안일한 태도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618 치과 중대 소속 카투사들과 미군들이 그들이다. 수많은 카투사들과 미군들 그리

제공사진

고 그들의 가족들의 건치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들. 이번 부대 탐방에서는 그들을 만나 보았다.

618 치과중대는 1929년 618의무중대로 창설되어 1941년 6월 테네시에 있는 포레스트 지휘소의 18의무연대소속 중대로 활동하였다. 중대는 1992년 4월 6일 장정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향상된 군사력 확보를 위해 고안된 '메디컬 포스 2000' 체제하에서 한국 최초로 치과관련 장비편성 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163의무대의 예하로 편입되어 한반도와 인연을 맺게 된다. 하지만 초기에 계획된 '메디컬 포스 2000' 체제가 1999년도에 육군 의무부의 '의무단 재구성 개시(MRI)' 계획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618 의학 중대'라는 이름 하에 다소 포괄적인 의료 업무를 맡아온 중대는 '618 지역 지원 치과 중대'로 이름이 바뀌며 그 임무가 더욱 구체화 되는 한편, 한국 전쟁 이후 치과 중대로서 주둔하고 있던 665 의학중대의 기능을 흡수하며 그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윌리암 바크앤드 대령의 지휘 아래에 있는 618 치과중대는 용산 소재의 본부를 비롯하여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스탠리, 원주의 캠프 롱, 평택의 캠프 험프리즈, 왜관의 캠프 캐롤, 대구의 캠프워커 그리고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까지 전 지역에 걸쳐서 평시에는 지역 내의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시에는 야전지역에서 작전 수행중인 장병들의 치과질환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복원 수술을 수행하거나 전쟁포로의 건강상태관리, 환자들의 감염 예방하는 등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주된 임무가 사병들의 치과진료 및 치료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카투사들의 군사특기는 치과 의사들의 집도를 옆에서 보조하는 치과병(Dental Assistant), 병원 내부에서 의료기기 혹은 물품들을 수리하여 분류하고 필요시에 공급하는 약품보급병(Supply specialist), 방문환자 및 중대내로 전입한 미군들의 인, 아웃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행정병(Administrator) 그리고 장교 및 부사관의 호송 혹은 물품 수송 등을 전담하는 운전병(Commander's Driver) 등으로 압축된다.

618 치과중대로 자대를 받게 되는 대다수의 카투사들은 치과병의 병과를 가지게 된다. 이들은 용산에 위치한 세 가지 진료소, DC1(Dental Clinic 1), DC2 그리고 DC3 중 한 곳으로 배치되는데 각각의 진료소에 따른 독특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같은 치과병의 군사 특기를 가지고도 판이하게 다른 일들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메인포스트, TMC(Troop Medical Center)부근에 위치한 DC1 은 캐리우스 진료소(Carius Clinic)라고도 불리며 오직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메인포스트에 거주하는 카투사들과 미군들이 아침 포메이션 후 치통으로 의무실을 찾을 때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캐리우스 진료소이다. 사우스 포스트, 121 국군통합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DC2 는 카투사 4 인, 미군 부사관과 사병 10인, 미군 의무 장교 4명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인원들이 상주하며 갖가지 우수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남한내의 미군치과병원 중 단연 으뜸이다. 이렇듯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DC2에서는 하루에 약 100명 정도의 일반 군인, 13세 이상의 군인의 가족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으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마지막으로 서울 미국인 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DC3 는 13 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치과이다. 영, 유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위치한 DC3 소속 카투사들과 미군들은 진료소의 높은 접근성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맡은 임무를 다 하고 있다.

"군대라는 말을 들으면 방탄헬멧과 조끼를 착용하고 양손에는 소총을 움켜쥔 장병들의 모습만을 상상하기가 쉽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시작한 618 치과중대 선임병장 방민서 병장은 "건강한 신체에서부터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언급하며, "한반도를 지키는 전우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 어깨가 무거운 느낌"이라고 자신들의 임무의 막중함을 표현하는 한편, 자신들의 일상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도 가미했다.

"저희 중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대 존재의 목적 자체가 '사병들의 치과관련 치료를 담당 하는 곳

카투사 신문 이정우

'이기 때문에 저희의 일상 업무는 치과 치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진료소에는 6인의 일반 치과의와 4 인의 치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치과의를 주로 보조하면서 충치 치료, 자리를 잘못 잡은 사랑니 제거, 구강내 수술, 신경 치료 그리고 충치에 금박 혹은 레진 등을 씌우는 인레이 작업 등을 돕습니다."

"치과병으로 군사 특기를 받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은 의료 보조입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라고 618 치과 중대 DC2 소속 방경수 상병은 "병원 내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카투사들이

카투사 신문 이정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들은 치과병으로서의 임무 이외에도 많은 임무들을 도맡아 합니다. 접수처에서 환자의 입원 및 퇴원수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병원 시설물들의 유지 보수, 의료기기의 정비 그리고 외국어에 서투른 분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기도 한답니다. 치아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X-Ray 촬영 등의 고난도 작업들도 카투사들이 합니다. 병원부설 연구

카투사 신문 이정우

실에서 일하는 카투사들도 있습니다. 연구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치과 치료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인데, 카투사들은 이곳에서 보형물이나 의치, 이 하나가 부러져서 생기는 틈을 메우는 브리치 방식 등을 연구해서 더 효율적으로 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들도 결코 쉬운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대배치를 방금 받은 신병 무렵에는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이 전문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사실, 혹은 전문적인 장비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 등이 난관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2주정도의 적응기간을 거치면서 선임병들로부터 기초적인 보직 교육을 받고 나면 6주정도의 추가 교육을 받고나서야 배치되는 여느 미군들보다 훨씬 두드러진 실력을 보여주는 게 618 치과중대의 카투사들입니다 ."

"병원에서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난 후 얻는 보람 못지않게 병원에서의 일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재미난 경험들이다" 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618 치과중대 DC3 소속 김상문 일병은 "어린이들만 방문하는 진료소인 만큼 특별한 경험도 많다" 고 말했다.

"저희 DC3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역 복무 장병들의 가족들 중 13세 미만의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소아 전문 치과 입니다.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미국 어린이들의 치과 공포증은 가공할 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진료 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잘 타일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이들이 치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잘 참았다는 뜻으로 장난감 선물을 줍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보급병에게 의료 물품뿐만 아니라 아동 장난감도 같이 구매할 수 있게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가끔은 카투사들이 직접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면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도 한답니다. 그때마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 어린이들만 치과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다" 고 말하며 김일병의 말에 동의한 618 치과중대 DC2 소속 백철승 상병은 "어른들도 역시 치과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이곳 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는 진찰의 최대 장점은 아마도 진료비가 무료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들에게 의료 봉사를 한다는 취지에서 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만,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돈을 내지 않기 때문인지 진료 자체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진료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 의사를 앞에 두고 당연하다는 듯 진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진료소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담당 의사와 제가 진료 준비를 마치고 환자에게 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환자는 막무가내로 '오늘은 입을 벌릴 수 없을 것 같다' 며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치과에 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막상 어른이 그렇게 버티니 난감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618 치과 중대원들은 평시의 의료보조 이외에도 전시의 야전 의료보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618 치과중대 DC2 소속 이원용 병장은 "주독 미군 혹은 주일 미군은 부대내 치과 진료소 업무와 야전 치과 진료소 업무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618 치과중대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1년에 두 차례 캠프 험프리즈의 필드 사이트에서 1주일가량 야전진료 훈련을 한다" 고 이야기 했다. FTX라고 불리는 이 훈련은 벌판에 텐트를 설치하고 치과 진료에 필요한 갖가지 장비들을 옮겨놓는 것으로 시작된다. 위장까지 마친 텐트에 모든 장비들을 설치한 이후에는 캠프 험프리즈내의 치과 병원에서 환자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야전에서 일어날 상황을 가정하여 치료를 한다. 이것은 실전에서의 치료 경험을 쌓기 위한 방법이다.

이병장은 "훈련기간이 긴 타부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1주일 정도의 기간을 필드에서 보내는 것을 두고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무게의 야전 치료 장비들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고 덧붙였다.

"장비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치과 진료용 의자만 하더라도 건장한 카투사 네 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치료용 드릴기구, 석션기구 등이 첨가되면 상황은 설상가상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훈련 이후의 뿌듯한 복귀를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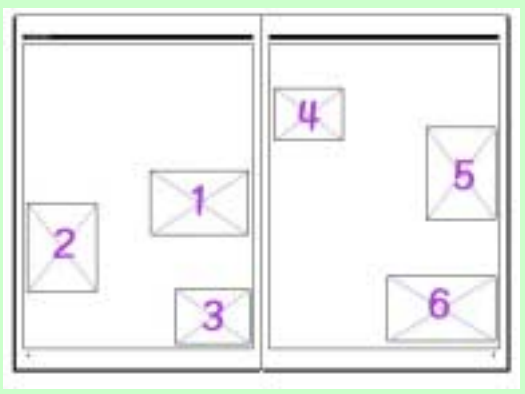
"그와 더불어 또 다른 훈련으로는 FTX의 모의훈련인 STX와 커맨더스 챌린지가 있다" 고 618 치과중대 DC2 소속 방경수 상병은 덧붙였다. "STX는 기간이 단축된 FTX 입니다. 1박 2일 정도의 일정이지만 텐트를 설치하고 위장을 덧씌우며 모든 장비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캠프 험프리즈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차이점 입니다. 커맨더스 챌린지는 이번 3월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훈련의 성격을 띤 일종의 중대내부 경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618 치과중대 내에서 치러지는 이 훈련은, 제 1지역대, 제 2지역대 그리고 제 3,4 지역대에서 4인 1조의 팀을 선발하여 FTX에서 수행하는 텐트설치, 야전장비 설치에서부터 전 장비 해체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과정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수행하는지의 세 가지 평가기준으로 서열을 매깁니다."

618 치과중대 선임병장 방민서 병장은 "실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들을 경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시도가 우리 중대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라고 방상병의 의견에 동의하며 중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카투사 신문 이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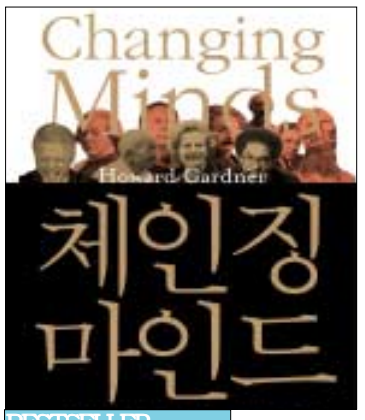
군복과 함께 진료복을 입으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맡은 바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618 치과중대원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그들에 대한 기자의 첫인상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는 사실에서 기인한 호기심이 전반을 이뤘었다. 하지만 인터뷰 줄곧 그들이 보여준 치과 중대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의무감은 기자로 하여금 '카투사' 라는 이름을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

일병 이정우



1. 618 치과중대원들이 의료장비를 운반하고 있다.
2. Spc. Hand Chad 와 함께 인사동을 방문한 618 치과중대 카투사들.
□.□□□ 보급소에서 의약품을 정리하고 있는 박주한 상병.
4. 구강내 X-Ray 촬영중인 618 중대 DC2 소속 이원용 병장.
5. 집도를 보좌하는 618 치과중대 DC2소속 방경수 상병.
6. DC2 접수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618 치과중대 DC2소속 백철승 상병.

카투사 신문 이정우



BESTSELLER

체인징 마인드

하워드 가드너 / 재인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교수가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설득'이라는 문제에 집중시켰다.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생각에 입각한 행동을 시작하기까지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가드너는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일곱 가지 지렛대'라고 부른다.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확실하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WEBSITE

요가요가

www.yogayoga.co.kr

날씨가 무더운 여름, 외출하여 활동하는 것이 싫어 시원한 방안에만 있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진 않은가. 가벼운 요가로 지친 몸과 뻐근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이어트 및 자세 수정 요가, 증상별 명상요가, 각종 건강법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군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대한민국, 서울 용산기지 한미연합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인 리언 라포트 대장은 최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하던 중 순직한 한국인 장병들의 죽음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라포트 사령관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전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훈련도중 발생한 비극적 사고로 대한민국의 훌륭한 군인 4명을 잃었습니다.

안학동 하사가 전술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임진강 급류에 휩쓸렸을 때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4명의 동료 전우들은 개인의 안전은 뒤로한 채 부하, 선임병을 구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직 동료를 구하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박승규 대위, 강지원 하사 그리고 김희철 상병의 용기도 거친 물살에 잠들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는 7월 13일에도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해상 대침투훈련 지원을 위한 비행 훈련 중 공군의 김태균 , 이해남, 김동철 중령과 김종수 소령이 순직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연합사, 주한미군사 전 장병들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장병들의 희생에 대해 유가족, 지휘관과 전우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순직한 장병들은 자유와 값진 민주주의의 수호자이며,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자유를 수호하는 전 세계의 군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순직한 87명의 한국군과 10명의 미군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는 제가 연합사령관으로 부임한 이래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순직한 한미 장병들의 명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를 간직하는 이유는 고인들을 기억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저의 책임을 항상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헌신을 한 고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순직한 장병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지금도 국가를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확고한 자세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선배 전우들이 지켜낸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혹자는 대한민국 국군이 군기와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주에 대한민국 군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 희생 정신, 사명감을 보았습니다. 병사들로부터 고급간부들까지 엄정한 군기를 생명으로 하는 전 장병은 이 나라를 위하여 자부심을 갖고 복무하고 있습니다. 간혹 군기에 문제가 있지만 이는 극소수의 경우이며, 군 복무자들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자신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군대이며, 저를 비롯한 전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숭고한 희생을 치른 우리의 영웅들을 기리며, 그들의 정신은 지금복무 중인 모든 군인들 안에 살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군의 전 장병들과 함께 그들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정열, 성실성, 충성심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카투사 기고문

TV 드라마 속에 나오는 옛날 차들

사극이 아닌 이상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시대 배경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소품 중 하나가 자동차이다. 오래 전 첫사랑과 같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주인공들만 옛날 차를 타고 다니고 주변에는 최신형 차들이 질주하는 등 고증이 엉성하기 그지없었지만, 최근 우리 나라 드라마가 많이 발전했는지, 요즘 보는 드라마는 시대 배경 재현에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최근 보고 있는 드라마 중 과거를 배경으로 한 5 공화국과 패션 70's 에서 제등장한 자동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 5 공화국

제 5 공화국은 70 년대 말, 80 년대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등장인물들이 고위 장성,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나라 고위층이 이용하던 고급 차량이 등장한다. 당시의 대표적인 고급 차라고 할 수 있는 등장 모델을 소개한다.

1. 기아 피아트 132

제5공화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되는 전두환의 차이다. 전두환이 소장의 지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계속 타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차이다. 기아는 자전거 공장에서 시작해 60년대 소형 삼륜 화물차를 만들다가 74년 10월 첫 승용차로 마쓰다의 323 파밀리아를 도입해 브리샤란 이름으로 시판했다. 76년 경쟁사였던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하고, 79 년에는 고급차로 푸조 604(2.7 리터)와 피아트 132를 내놓는다. 자체 기술은 아니지만 국내 생산한 차량 중 최초로 DOHC엔진을 장착했다.(2.0리터, 115마력, 최고속도 171Km/h) 푸조 604와 피아트 132

제공사진

1949년형 캐딜락 플리트우드 60 스페셜.

는 각각 당시 푸조와 피아트의 플래그 쉽(Flag ship-가장 크고 비싼 고급차)이었으며, 이 모델을 생산하면서 기아는 고급 승용차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자 했다. 81 년 정부의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기아는 승용차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었고, 상용차만을 생산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81 년 봉고 트럭을 개조한 승합차 봉고를 내놓아서 유명한 봉고 신화를 이루게 된다.

2. 현대 그라나다

78년 11월부터 현대에서 시판한 당시 국산차로는 가장 고급스러운 자동차였다. 독일 포드에서 들여온 차로 유럽에서도 비슷한 시기 유럽 포드의 고급차로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다. 유럽에서는 72년부터 85년까지 판매되었다. 현대가 생산한 모델은 78년 데뷔한 2세대 모델이다. V6 2.0리터 엔진 102마력 엔진을 얹었으며 86년 미쓰비시 데보네어를 들여온 1세대 각 그랜저가 나오기 전까지 현대의 플래그 쉽 모델이었다. 당시 한국 상류층에서 애용한 차량이다. 80년대 초에는 석유파동으로 4기통으로 줄인 모델을 시판하기도 했다.

제공사진

페라리 400i 모델의 옆모습.

3. 현대 포니

74년 등장한 우리 나라 최초의 고유모델이다. 현대자동차는 67년에 설립되었고, 포니 이전에 포드에서 코티나를 들여와 시판하였다. 코티나는 유럽 포드의 베스트셀러로 유럽에서 호평을 받은 차이지만, 비포장 도로가 많은 우리 나라 도로 사정에 맞지 않아 고장이 많은 차라는 혹평을 받았다. 코티나 이후 모델을 개발하면서 포드와 기술제휴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자 현대는 국내 최초로 자체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포니는 미쓰비시의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의 하체는 미쓰비시 랜서의 것을 사용하였고, 엔진도 미쓰비시의 것을 사용하였다. 디자인은 폴크스바겐 골프를 디자인 한 것으로 유명한 이탈디자인의 쥬지아로가 맡았다. 패스트 백 스타일(fastback-차 지붕과 후면이 매끈한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엔진 등 핵심 기술은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지만, 이전에 외국 모델을 조립 생산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어 수출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82년에는 부분적으로 모양을 변경한 해치백(hatchback) 포니 2 가 나와서 90 년까지 생산되었다. 1.2 리터 1.4 리터 엔진을 얹었다. 포니 1에는 픽업, 왜건, 3도어 모델 등이 있었고, 포니 2 에는 픽업 모델이 있었다. 차체 크기에 적당한 엔진 성능과 경쾌한 달리기, 경제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모델이다. 76년에 에콰도르에 포니 택시 7 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시작해 캐나다 등지에 포니를 수출하였고, 후에 86년 엑셀로 미국에 첫 수출을 하게 된다.

패션 70's

이 드라마에는 소품으로 낯선 차들이 등장하는데, 태을 방직 고 회장의 차와 딸인 준희의 차이다. 워낙 고급 모델이라서 당시 국내의 자동차 문화를 살펴보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차량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독자들을 위해 소개한다.

1. 페라리 400i

드라마 속에서 준희(김민정 분)의 차로 등장한다. 1976년 파리 모터쇼에서 데뷔하였고, 피닌파리나가 디자인과 차체 제작을 맡았다. V12기통 4.8리터 340마력이며 최고속도는 240Km/h이다. 일반적인 페라리와 같은 정통 스포츠 카라기보다는 스포티하면서도 쾌적한 GT (Grand Tourer-스포츠카의 성능이면서 승용차처럼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2. 캐딜락 플리트우드 60 스페셜

드라마 초반부터 고회장의 차로 등장하는 커다란 검은 고급차이다. 캐딜락이 플리트우드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1938년부터이다. 이후 모델은 계속 바뀌었지만 플리트우드란 이름은 중간에 잠깐 사라진 적도 있었지만, 90 년대 초까지 캐딜락은 대형 고급 세단 모델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캐딜락 플리트우드는 미국 대통령 전용 리무진의 기본 모델이기도 한 고급차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승만대통령부터 최규하 대통령 때까지 대통령 전용차였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델은 40년대에 생산된 모델로 보이며 V 형 8 기통 엔진을 얹고 있다. ■

회계감사과 상병 문제필

MOVIE

친절한 금자씨

감독: 박찬욱

주연: 이영애, 최민식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인 '금자'(이영애)는 스무 살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된다. 13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보내는 금자. '친절한 금자씨'라는 말도 교도소에서마저 유명세를 떨치던 그녀에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교도소 생활 동안 그녀가 친절을 베풀며 도왔던 동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출소한 금자의 복수를 돕는데...

TOP CHARTS

Girls on top

보아

2.제자리걸음 / 김종국
3.She is/ 클래지콰이
4.떠나지마 / 신혜성
5.Hi Ya Ya 여름날 / 동방신기
6.짠짜라 / 장윤정
7.I Love U,Oh Thank You/MC몽
8.Smile Again/KCM
9.여자/Big Mama
10.보통여자 / 린
11.못다핀 꽃 한송이 /MAYA
12.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Buzz
13.내 사랑 송이 / 클론

상큼한 느낌의 그녀 최자혜

요즘 인기가 한창인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에 출연 중인 최자혜씨를 만나보았다. 촬영 중에 시간을 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라 피곤하고 지쳤을 법한데도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응해주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최자혜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 간단히 자기소개와 최근 근황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굳세어라 금순아'에서 금아 역을 맡고 있는 최자혜입니다. 요즘은 연기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모델,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다른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는답니다.

- 촬영하면서 좋았던 점들 혹은 재미있는 에피소드.

제작 기간이 긴 '일일드라마'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팀간에 단합이 매우 잘되어서 촬영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들께서도 연기에 관련된 많은 것을 가르쳐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따귀를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연기에 열중해서인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녹화한 걸 보니 매우 세게 때리셨더라고요(웃음).

-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역할은?

우선 저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드라마 '대장금'에서 먹보 '창이' 역할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 연기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기하고 있는 '금아' 역할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분야가 인상 깊었는지.

우연한 기회에 MC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도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로서의 역할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형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제 이상형은 부드럽지만 강한 남자입니다. 슬플 때 같이 슬픔을 나누고 즐거울 때 같이 좋아해주는 자상하면서도 강한 남자가 좋습니다.

- 카투사에게 한마디

요즘 날씨도 더운데 고생하시는 카투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인터뷰를 통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요. 앞으로의 활동 지켜봐 주세요.

사진: 카투사 신문 이정우 글: 카투사 신문 박지용